

함평교육청, '학부모회 네트워크와 함께하는 교육감 경청올레'

기초학력 책임제 등 추진되고 있는 정책 대해 감사 표해
"교육용 강의영상 제작 홍보 등 의견 반영에 힘쓰겠다"
"학부모님들의 교육에 대한 열정적인 관심·의견 감사"

함평교육지원청(교육장 김완)은 12일 전라남도교육청의 교육정책에 대한 학부모 의견수렴 및 반영을 위한 '함평 학부모회 네트워크와 함께하는 교육감 경청올레'를 가졌다. 경청올레에서 학부모들은 장석웅 교육감의 전남 교육 정책 중 꿈 키우는 교육 실현 과제인 함께 키우는 기초학력 책임제, 마을교육

공동체 운영체제 구축과 내실화, 고교 교육 재난지원금, 코로나-19 상황에 전국 최초로 각 가정으로 농산물 꾸러미를 배부 등 잘 추진되고 있는 정책에 대해 감사를 표하였다. 이어서 교사, 학생, 학부모,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교육할 수 있는 교권과 학생 인권의 올바른 이해에 대한 교육용 강의영상 제작 홍보를



요청하고, 교원들의 인성 함양을 위한 교육 및 연수의 필요성, 남다른 교육열을 가진 함평지역의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에 적극 투자해달라는 말도 덧붙였다.

경 교육감은 "함평 학부모님들의 교육에 대한 열정적인 관심과 의견에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껴어있는 학부모님들이 많아서 아주 든든하고 우리 전남 교육의 미래가 너무 기대된다. 학부모님들의 의견이 반영되어 전남교육이 더 발전 될 수 있도록 적극 힘쓰겠다."고 말했다. 경청올레에 참여한 함평 학부모회 네트워크 김현숙 회장은 "교육감님과 우리 함평 학부모들이 이런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너무나 좋고 뜻깊은 자리였다. 우리 학부모들도 함평 교육 및 전남 교육이 더 발전되고 잘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교육의 주최로서 열심히 돕겠다."라고 하였다. 함평=김광춘기자



보성 학생 임원단, 행동하는 정책분석가 되다

국제인증 퍼실리테이터와 함께하는 급별 퍼실리테이션 실행연수

보성교육지원청(교육장 김한관)이 12일 ~13일 보성학생연합자치회 자치역량 강화 연찬회 개최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이틀에 걸쳐 학교급별로 분리 운영하며 심도있는 실행연수를 진행했다. 국제인증퍼실리테이터 김민영 강사와 전문퍼실리테이터 정혜선 강사의 체계적인 지도를 통해 보성군 청소년 정책과 자율적인 학교 공동체 운영을 주제로 차세대 리더로서의 역할을 키웠다. 선진화된 다양한 퍼실리테이션 기법을 통한 아이디어 공유와 의사결정 방법을 경험하는 과정은 각 학교 리더로서 자율성, 유능감, 관계감 향상을 북돋웠다. 특히 보성의 정책에 대한 학생들의 생각을 나누는 '해움나눔(보성 학생자치 특성화 프로그램)'은 전문적인 퍼실리테이션을 바탕으로 보다 의미있는 결과를 만들어냈

다. '보성군 자전거 도로 만들기', '청소년을 위한 보성의 문화축제' 등 보성군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예술 행사, 생활 속 정책 등에 대한 발전 방향을 다양하게 내놓아 눈길을 끌었다. 이번 정기회에 참여한 다항고등학교 학생 김00은 "의견을 나누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경험해서 좋았다. 막연하기만 했던 회의나 협의에 대한 기술들을 실행해보니 회의진행에 자신감이 생겼다."는 소감을 전달했다. 김한관 교육장은 "보성의 학생 리더들이 머리를 맞대고 보성의 발전에 대해 이야기한 의미있는 자리에 함께할 수 있어 기쁘다."며 "보성교육지원청은 학생들의 성장을 위해 항상 가장 가까운 곳에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성=김덕순기자

목포대 교육혁신개발원, 제4차 학습법 특강 및 워크숍 개최

"노트필기! 너는 어떻게 하니?" 주제로 진행...총 210명이 수강

국립목포대학교(총장 박민서) 교육혁신개발원(원장 오장근)은 지난 9월 25일부터 10월 9일, 2주간 온라인(목포대학교 LMS 동영상 시청)으로 제4차 뜨끔S(뜨거운꿈요일STUDY) 학습법 특강 및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제4차 학습법 특강은 2019~2020년 창의융합 학습콘텐츠 제작 공모전 '나만의 대학 생활 분야'에서 수상한 2명의 학생을 강사로 초빙하여 '노트작성·필기전략' "노트필기! 너는 어떻게 하니?"라는 주제로 진행하였고 총 210명이 수강했다. 첫 번째 발표자인 간호학과 강두호 학생은 슬기로운 학습방법이라는 주제로 수업 시간과 수업 이후 필기 방법, 노트 정리 기술(마인드

맵, 코넬노트 등), 학습법 노트작성 방법의 장단점을 공유함으로써 학습법 노트작성 방법을 고민하는 참여 학생들에게 도움을 줬다. 두 번째 발표자인 관광경영학과 최윤서 학생은 One's Own Strategy이라는 주제로 노트 필기의 의미와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실제 노트작성 및 사례를 공유했다. 학습법 특강에 참여한 학생들은 "실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의로 듣게 되어 도움이 되었다.", "특강 주제와 내용 자체가 도움이 되었다.", "노트 정리 방법을 새롭게 알게 되었고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알게 되어 학습할 때 적용하기 좋을 것 같다." 등 다양한 의견을 주었다.



행사를 주관한 교육혁신개발원 오장근 원장은(독일언어문화학과 교수) "학생 발표자의 필기 전략들이 특강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실제 학습을 하는 데 도움이 된 것 같다."라며 "전문가 특강 이외에도 뛰어난 동료학습자의 학습 사례 공유를 할 수 있도록 특강 기회를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목포=박정수기자

순천대, 완도 해양치유산업 진흥 위한 관학 협력 체계 구축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성공 개최 등 산학협력관계 활성화 위해 체결

순천대학교(총장 고영진)가 완도군과 '2021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성공 개최 및 해양치유산업 진흥을 위한 관학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최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2021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성공 개최 △해양치유산업 진흥 및 인적 교류 활성화 △인재 양성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산학협력관계 활성화를 위해 체결하였다. 협약은 코로나19로 도래한 언택트 시대에

발맞춰 대학본부 중회의실에서 화상프로그램을 이용해 온라인으로 체결하였으며, 양 기관이 미리 서명을 받은 업무협약서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순천대 고영진 총장은 "대학과 군의 지난 연구 성과들이 마중물이 되어 이번 협약 체결로까지 이어지게 되었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완도군의 지속적인 친선 교류를 통해 2021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의 성공 개최와 더불어 해조류산업 진흥을 위

해 대학의 풍부한 인적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관련분야 연구 활성화도 함께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순천대학교는 지난 2015년부터 완도군과 '해산물, 깃털 활용 관련 연구', '농산물 및 작물 관련 연구' 등 8건의 과제 수행을 통해 괄목할만한 성과들을 거둔 바 있으며, 특히 현재 진행 중인 '백반석과 해산물의 영양학적 관계 연구'(연구 책임자 김정빈 교수)는 해양치유산업 활성화를 위한 토대를 형성할 것으로 평가받는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기자

